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3년 6월 16일(금)
--(음력 4월 28일)--
Пятница
16 июня 2023 г.
№ 23 (12040)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6월 18일 의료진의 날 기념

▲ 김 스베틀라나는 유즈노사할린스크 '아랄리아'요양소의 재활치료과 과장이다. 보건분야에서 이미 19년간 활약한 가운데 블라디보스토크 의대를 졸업한 후 장기간 유즈노사할린스크 시병원에서 일했고, 5년전에 '아랄리아'요양소로 옮겼다. 뛰어난 실력의 전문가로 인정받은 김 스베틀라나는 사할린주 보건부 감사장, 유즈노사할린스크 시두마 표창장을 비롯 여러 표창장으로 포상되었다.

(이예식 기자 촬영)

친애하는 의료진 여러분!

여러분이 종사하는 직종에 대한 기념일을 맞아 축하를 전합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을 치료하는 어렵지만 고귀한 임무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의 직종에는 깊은 지식과 용기, 자비, 책임감과 같은 정신적 자질이 필요합니다.

사할린과 쿠릴열도의 의료 시스템은 최근 몇 년 동안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기관 조직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진료소와 출산소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최첨단 기술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교외 지역에 이동식 의료 단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 치료의 질이 향상되고 사할린과 쿠릴 주민들이 현지에서 직접 첨단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진정한 전문가인 여러분 덕분입니다.

사심 없이 일하고 친절과 인내를 베풀어 주신 모든 의사, 구급대원, 간호사, 질서 유지 요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 번영을 기원합니다! 즐거운 기념일 되세요!

사할린 주지사 알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는 투자 면에서 극동 지역의 선두주자 중 하나로 드러나

극동 지역의 투자 환경 개선이 유리 트루트네프 극동연방지구 부총리 겸 러시아 대통령 전권대표가 주재한 지방의회 회의 의제로 다루졌다. 알레리 리마렌코 사할린주 지사도 행사에 참석했다.

"극동 지역은 여전히 1인당 투자 유치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저는 지역의 투자 매력을 가능하는 가장 좋은 척도는 실제 투자 유치액이라고 확신합니다. 현재까지 극동 지역에서 국가 지원을 받는 프로젝트에 실제 투자된 금액은 총 3조 2,000억 루블리에 달합니다. 636개의 프로젝트를 통해 118,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라고 유리 트루트네프가 말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극동 지역의 고정 자본 투자액은 약 8조 루블리에 달했다. 사할린 주는 투자 측면에서 선두주자 중 하나이다.

"투자 환경은 문제에 얼마나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필요한 결정을 내리는지에 따라 직접적으로 좌우된다. 우대 제도를 만들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새로운 도구(극동 헥타르, 대통령의 '단일 보조금', '극동 대출', 우대 금융 프로그램, '극동 용자', 단일 극동 항공사 설립)는 우리가 극동에서 직면한 도전에 대한 대응책"이라고 러시아 극동 및

북극 개발부 장관 알렉세이 체쿰코프가 말했다.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사할린주의 성공적인 투자 유치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역 책임자는 보고서에서 2022년 자본 투자가 2,690억 루블리로 1년 전보다 290억 루블리 증가했다고 밝혔다.

사회경제 개발 지역과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주민들은 섬의 경제에 141억 루블리를 투자하고 1,10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다. 행정 및 비즈니스호텔, 볼세비키 산 정상에 위치한 레스토랑, 대형 페타이어를 고무조각으로 가공하는 공장, 치즈 제조 시설 등이 추가로 가동되고 있다.

석유 및 가스 산업 단지와 도매 및 유통 센터가 있는 농업 산업 단지의 건설이 계속되고 있다. 우대 제도에 따라 9명의 신규 거주자가 유치되어 관광, 서비스 및 개발 분야의 프로젝트를 수행했으며, 총 37억 루블리의 자금이 투입되어 300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현재 상황에서 우리는 투자 환경을 경쟁력의 한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자본이 러시아를 떠나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른 국가와의 경쟁에서 이겨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3면에 계속)

새고려신문

2023년 하반기 신문 구독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3년 하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계속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6개월 구독료는 606루블리입니다. 신문 인텍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편집부)

단신

사할린주, "추모의 촛불" 및 "침묵의 분" 행사 개최

추모와 애도의 날, 6월 22일, 나라는 위대한 조국 전쟁 때 조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국민들을 기리는 전 러시아 "추모의 촛불"과 "침묵의 분"행사가 개최될 것이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는 6월 22일 아침 4시에 영예 관장에서 "추모의 촛불"행사가 열릴 것이다.

아침에는 영예 관장에서 기념비 <영원한 불>에 꽃과 화환 헌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추모와 애도의 날에 모스크바 시간 12:15(사할린 시간 20:15)에 러시아 전국에서 "침묵의 분"이 동시에 발표될 것이다.

리마렌코 주지사, 러시아의날에 돈바스에서 사할린 군인들 만나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방문 중인 알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는 사할린 군인들에게 국가 표창을 수여하고 새로운 특수장비를 전달했다. 또한 후원하고 있는 샤희트르스크 지역의 14세 학생들을 위한 신분증 수여식에도 참여했다.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에서 국경을 지키는 사할린과 쿠릴 군인들은 새로운 현대식 장비와 복장을 지급받았다. 이번에 장병들에게 전달된 7대의 ATV는 크기가 작고 산악 주파능력이 뛰어나 부상자를 보다 신속하게 대피시킬 수 있다. 사할린에서 조립한 소형 굴착기와 드론도 전투원들을 돕기 위해 전달되었다.

"사할린 개인 의료 진료"

프로젝트, 연방 차원에서 인정

사할린 개인 의료 진료 프로젝트가 전 러시아 대회 '오르그즈드라프. 업계 선두주자'에서 2위를 차지했다. 블라디미르 쿠즈네초프 사할린주 보건부 장관은 전러시아 포럼에서 올해 2월부터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 중에서 선발된 의료 행정가들의 업무에 대해 발표했다고 사할린주 정부 언론에서 전했다.

5개월 만에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건강 가이드 팀에 합류했다.

사할린주민 4,000명 새 주택에 입주 예정

2023년 말까지 사할린주 주민 4,000명이 새 주택에 입주할 예정이다. 이는 지역 정부에서 보도한 내용이다.

새로운 입주자들은 모두 노후 주택에서 퇴거한 사람들이다. 연초에 이미 사할린과 쿠릴열도에 있는 1,300가구가 새로운 주택에 입주하였다.

오늘 현재 오하, 노글리키 지역 왈 마을, 알렉산드롭스크 사할린스키, 스미르니흐, 가스텔로, 포로나이스크, 말로쿠릴스크, 유즈노쿠릴스크, 아니와 및 코르사코프 주민들이 신규 아파트를 받았다.

6월 18일 의료진의 날 기념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는 강봉순 의료진

매해 6월의 3번째 일요일은 러시아에서 의료진의 날로 기념한다. 올해는 이 직업명절을 6월 18일에 쇠니다.

옛날부터 한인들에게 의사는 위신 있고 인기가 많은 직업 중 하나였다. 그래서 의사로서 성공한 사할린 동포가 꽤 많다.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분은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병원의 내분비학자 강봉순(러시아 이름 스페틀라나 미하일롭나) 씨다.

천직이라고 여기는 직업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어릴 적부터 이 직업에 대한 꿈을 키워왔다고들 한다. 강봉순 씨도 예외가 아니다.

10살부터 의사가 되고싶다고 했고, 꿈은 이루어졌다.

포르나이스크 출신인 그는 당시 동포 다수와 마찬가지로 무국적자였기 때문에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 등의 대도시 대학에 갈수 없었고, 의대 선택권이 별로 없었다. 그래서 노위시비르스크 의대에 입학하기로 했다. 의대라면 항상 통과점수가 굉장히 높고 경쟁률이 심했다. 첫 해는 점수가 모자라서 학교를 졸업한 다음 해에 의대에 입학할 수 있었다.

가족 중 4명의 막내로 자란 그는 꼭 꿈을 이루고 싶었다. 의대에 입학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

었기 때문이다. 7-80년대 초기, 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 다수가 형편이 어려워서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다. 봉순씨도 대학 1학년부터 학창 시절 내내 병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처음엔 간호 보조로, 3학년이 되자 간호사 등으로 일했다. 돈벌이도 하고 또 다른 편으로 의료진으로서 경험을 쌓아갈 수 있었다.

"의사는 사람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입니다. 저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자비 없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라고 강봉순 의료진이 이 직업을 선택한 원인을 말하였다.

그는 의사를 선택한 것에 대해 단 한번도 후회하지 않았다. 대학을 졸업하고 1985년에 유즈노사할린스크 제2진료소 내과 의사로 파견되었다. 마침 그가 대학에서 공부할 때 부모가 포르나이스크에서 유즈노사할린스크시로 이사해 부모님과 같이 지낼 수 있었다.

내과 의사로 5년 활동한 뒤 지도부에서 내분비학 의사를 하고 싶지 않느냐고 물어왔다. 긍정적으로 대답한 그는 교육과정을 거쳐 내분비학 의사로 활동을 시작했다. 시병원에서 내분비학 의사가 필요해 지금의 병원으로 옮겼는데 거의 30년동



안 일하게 되었다. 2000년대 초까지 이 병원에 내분비학과가 있어서 전문의, 나중에는 과장까지 맡았다. 병원에 구조조정이 있는 후 내분비학 과가 아예 없어졌는데, 현재 강봉순 의료진은 신경과 소속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전 병원 내분비학 전문의로 활약하고 있다. 전문의로서 그는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모든 환자들과 상담을 하고 있다. 특히 당뇨 환자에 대한 소견이 많다.

고급 의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강봉순 의료진의 하루는 매우 바쁘다. 환자들이 한 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서 전 병원의 과들을 돌아야 한다. 그는 하루에 보통 15-18명의 환자를 진료한다.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동료들과만 아니라 여러 곳 전문의들과 상담하기도 한다. 거의 매해 연

수를 다니다 보니 내분비학 전문의들도 많이 알게 되었다.

일에 대해 이야기 할 때 강 의료진은 더 열정적이 된다. 좋아하는 일로 하루를 바쁘게 지내는 강 의료진은 최근에는 주말에 쉼 시간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일한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 의욕이 넘쳐, 심리학에 대한 호기심으로 2-3년의 심리학 온라인 교육과정을 밟기도 했다. 이 지식을 나중에 어떻게 사용될지 아직은 모르겠지만 모든 걸 꼼꼼하게 배우는 스타일이라 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다.

일주일 전에는 모스크바에서 진행된 내분비학 전문의들의 전국 콩그레스에 다녀왔다. 이런 전문적 만남이 의사로서의 성장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강 의료진은 말한다.

그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 가족이다. 그리고 좋아하는 일이다. 두 자녀(1남1녀)의 어머니, 4살 손자의 할머니, 아내로서의 행복이 그에겐 아주 중요하다.

그녀는 건강한 생활을 하려고 노력한다. 특히 몸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쓴다.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한다. 겨울에는 크로스컨트리 스키 타기, 여름에는 걷기 운동을 한다.

스키는 남편 덕분에 타기 시작했

는데, 주말마다 남편과 함께 타고, 평소에도 운동으로 스키를 탄다. 이번 인터뷰는 일부 전화로 진행됐는데, 그는 역시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걷기 운동 중이었다. 그의 하루는 아침 5시부터 시작한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병원 근처에 걷기를 시작한다. 그리고 독서도 즐긴다. 특히 판타지가 마음에 든단다.

목적을 세우면 계획대로 움직이는 강봉순 의사는 사람들의 성실성과 친절성, 자비를 높이 평가한다. 그는 내분비학 전문의로서 잘 성장해 인정받고 있는 만큼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한다. 그것이 의사로서의 의무이고 도리라고 생각한다. 강 의사는 러시아 보건부 장관 표창장, 사할린주지사 표창장을 비롯, 보건 기관 여러 표창장과 감사장을 수상했다. 그런 상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은, 중요한 것은 오직 환자의 건강 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의사로서 계속 공부해야 하며, 새로운 것을 배워가야 한다. 그는 환자들에게 바이러스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점을 항상 상기시킨다.

의료진의 날을 맞아 강봉순 의사를 비롯해 모든 의료진들에 건강과 행운을 기원한다.

(배순신 기자)

이 모 저 모

사할린 전역 예술가들이 함께 러시아 국가를 불러

사할린과 쿠릴열도의 여러 지역에서 음악 그룹이 함께 동시에 러시아 국가를 녹음했다. 그들은 지역의 상징적인 장소를 배경으로 공연을 펼쳤다. 해당 영상은 사할린주 문화기록보존부 장관인 노나 라브리키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에 게시했다.

돌린스크, 네벨스크, 노글리크, 포르나이스크, 티몹스크, 우글레고르스크, 유즈노쿠릴스크 구역의 예술가들이 공동 작업에 참여했다. 그들은 관광 및 애국과 관련된 장소에서 비디오를 촬영했다.

Artists from different districts of Sakhalin together sang the hymn of Russia

Музыкальные коллективы из нескольких районов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 вместе записали гимн России. Они выступили на фоне знаковых для региона мест. Видеозапись опубликовала министр культуры и архивного дел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онна Лаврик в своем Telegram-канале.

В коллективной работе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артисты Долинского, Невельского, Ногликского, Поронайского, Тымовского, Углегорского и Южно-Курильского районов. Они записали видео рядом с местами туристического и патриотического значения.

극동 지역으로 유입된 관광객이 거의 5백만 명에 달해

2022년 말 러시아 통계국의 추정에 따르면 극동연방관구의 관광객 수는 483만 명에 달했다. 관광객 수 기준 상위 3개 지역은 연해주(142만 명, 전체 관광객 수의 29%), 부랴트 공화국(0.67만 명, 14%), 캄차카 변경(0.62만 명, 13%) 순이다. 4위는 하바롭스크변강으로 58만 명(12%)의 관광객이 방문했다.

극동연방관구의 호텔 숙박객은 약 10% 증가하여 353만 명으로 늘어났다. 극동 지역에는 총 2,200개 이상의 호텔이 있으며 객실 수는 54,200개 이상이다.

Туристический поток на Дальний Восток составил почти 5 млн человек

По итогам 2022 года, по оценкам Росстата, туристский поток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федеральном округе со-

ставил 4,83 млн человек. В тройку регионов — лидеров по туризму вошли Приморский край (1,42 млн туристов или 29% всех турпоездок), Республика Бурятия (0,67 млн туристов или 14%) и Камчатский край (0,62 млн туристов или 13%). На четвертом месте находится Хабаровский край, принявший 0,58 млн туристов (12%).

Рост размещения в гостиницах ДФО составил порядка 10%, увеличившись до 3,53 млн человек. Всего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ых регионах насчитывается более 2,2 тыс. гостиниц с номерным фондом более 54,2 тыс. номеров.

중앙은행: 사할린 여행사, 관광객 유입에 대비할 준비

국내 관광은 팬데믹 종식 이후 해외 여행지 수가 감소됨과 관련하여 점진적인 수요 회복으로 2022년과 2023년 초에 긍정적인 추세를 보였다. 사할린 여행사들은 관광객 유입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있다. 이것은 러시아 은행 극동 부서의 유즈노사할린스크 지점의 언론 서비스에 의해 보도되었다.

러시아 은행 "지역경제 해설 보고서" 최신판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 사할린 주와 연해주가 극동연방관구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행 지역으로 드러났다. 일부 극동 지역의 5월 연휴 기간 동안 캠핑 및 홀리데이 홈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2022년과 2021년보다 높았다. 2023년 여름 시즌에는 국내 및 타지역인들의 관광이 더욱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적으로 사할린 주의 관광객 수는 2023년에 1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업 관광은 섬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현재 지역 최대 기업 중 10곳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11개 섬 여행사가 광저우에서 열린 전문 전시회에서 여행 상품을 선보였습니다."라고 러시아 은행 사할린 지역 지점의 경제 부서장 이반 코구트가 말했다.

Центробанк: сахалинские туроператоры готовятся к притоку туристов

Внутренний туризм в 2022 году и начале 2023 года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 положительную динамику, что связано с постепенным восстановлением спроса после окончания пандемии при сокращении количества доступных зарубежных направлений. Островные туроператоры активно готовятся к притоку туристов.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Отделения Южно-Сахалинск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ГУ Банка России.

В очередном выпуске доклада Банка России «Региональная экономика: комментарии ГУ» говорится, что в ДФО с января по март 2023 года наиболее популярными регионами для путешествий стали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и Приморский край. Спрос на услуги турбаз и домов отдыха в период майских праздников в отдельных ДВ-регионах был выше уровня 2022 и 2021 годов. В летний сезон 2023 года ожидается дальнейший рост внутреннего турпотока и въездного туризма.

«В целом рост турпотока в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в 2023 году ожидается на уровне 15%. Высокую популярность на островах набирает промышленный туризм — сейчас в программе участвует 10 крупнейших предприятий региона. Для привлечения туристов из азиатских стран 11 островных туроператоров презентовали свои турпродукты на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ой выставке в Гуанчжоу», — пояснил начальник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отдела Отделения Банка России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ван Когут.

패널 세션 "극동 - 모험의 땅"에서 사할린 주에 관한 두 편의 영화 상영

6월 10일, 여행 포럼은 전 러시아 여행 콘테스트 "극동 - 모험의 땅"의 프레젠테이션 세션을 개최했다. 사할린 주에 관한 영화를 포함해 여러 편의 영화가 상영되었다.

"이 포럼의 목적은 극동 지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소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직접 여행을 하고 우리의 땅과 극동 지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른 지역의 사람들에게 우리 지역을 보여주며 그들을 끌어들이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유리 트루트네프가 언급했다.

공모전이 시작된 지 9개월이 지났으며, 이 기간 동안 심사 위원단은 이미 368편의 신청서 및 54편의 완성작을 접수했다. 전러시아 박람회와 패널 세션에서는 자바이칼스키 변경과 사할린 주를 방문한 현재 대회에서 세 명의 여행자의 작품이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지금상을 놓고 경쟁 중이다. 최고 상금은 3백만 루블이다.

안드라니 아가파노프는 영화 "바이칼, 아무르 철도의 절정에서 스칼리시 산맥까지"를 출품했고 다닐 키셀레프는 비디오 "북부 쿠릴. 에베코 화산탐험", 데니스 로디치킨은 "쥬단 코 산맥 등반"이라는 작품으로 참여했다. 각 영상은 패널 세션에서 상영되었으며, 참가자들은 각자의 여행에 대한 소감을 공유했다.

(8면에 계속)

"사할린 동포 문제: 해결방안" 실무학회 조직위원회로부터:

존경하는 동포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20년 05월 26일부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제정 이후에도 여전히 해당법 시행 관련 많은 애로사항이 남아있다. 2세이후 다음 세대의 우리 사할린 동포들이 여전히 영주귀국 등 지원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지 못해서 매우 아쉽다.

지난 6월 3일 사할린주를 비롯 사할린주를 비롯 러시아 연방과 CIS 국가 여러 지역에 거주하는 사할린 동포 사회 리더들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모여 «사할린 동포 문제: 해결 방안»을 주제로 실무학회를 진행했다.

대한민국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공동 청원서를 작성하여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 국회 의회장 또는 정부에 현행법 개정을 통해 사할린 동포 권익 신장을 위한 실무적인 방안을 만들어보았다.

아래 공동 청원서 내용 게재한다.

"사할린 동포 문제: 해결 방안" 국제 실무 학회 공동 청원서

**장소: 상트페테르부르크
존경하는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님**

(김진표 국회의장님, 김태호 외교통일위원장님, 박진 외교부장관님, 한동훈 법무부장관님, 이기철 재외동포청장님)

저희들은 러시아연방, 대한민국 그리고 CIS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사할린동포들의 대표자입니다.

고국에서 2020년 05월 26일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한 데 이어 2023년 05월 09일 《재외동포기본법》을 제정하고 2023년 6월 05일 재외동포청을 설치하여 재외동포업무를 총괄하게 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듣고 많은 위안을 받았습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여전히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23년 06월 01일부터 03일까지 러시아연방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모여 《사할린동포 문제 해결 방안》을 주제로 회의를 진행하였고, 여기서 논의된 방안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1.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관련
2020년 05월 26일 제정되고, 2021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하는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많은 사할린동포들이 고국으로 귀국하였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타국에서 갖은 설움을 당하면서 살아오던 많은 동포들이 고국으로 귀국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어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 법은 지원대상을 '1945년 0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이주한 사할린동포'와 그와 동반귀국하는 배우자 및 직계비속 1명 과 그 배우자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사할린동포가 이미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나 직계비속은 영주귀국을 하거나 그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가 없고, 나아가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 이외에는 동반귀국을 할 수 없어 부모형제간에 사실상 생이별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두번째는 현재 사할린동포들이 러시아연방, CIS국가 등에 생활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주귀국하는 경우 지금까지 일구어 온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 사정이 있어 선뜻 영주귀국을 결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1) 사할린동포란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하였다가 1945년 08월 15일 조국이 해방되었음에도 정치적 이유 등으로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한인(러시아 또는 CIS 국가 및 한국에서 사망한 한인 포함) 과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로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여러가지 사정때문에 영주귀국을 하지 못하고 러시아연방이나 CIS 국가 등에서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 사할린 동포들도 영주귀국하는 동포와 같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고, 영주귀국하지 않더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원대상은 영주귀국자로 한정하지 말고, 현지에서 생활하는 사할린동포들에게도 영주귀국자와 동일한 정도의 합당한 지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사할린동포들은 오랫동안 대한민국 체제와 문화가 다른 곳에서 생활하여 왔기 때문에 영주귀국을 하더라도 정착을 하는 것이 쉽지 않고, 영주귀국하지 않고 국외에 계속

날짜: 2023년 06월 03일

체류하는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고국과 점점 더 간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국내의 불문하고 모든 사할린 동포들이 민족의 동질성을 잃지 않고, 한민족이라는 정서적 유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세대별, 연령별, 수준별로 충분한 교육기회를 갖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국적법》 관련

현재 사할린동포들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국적회복, 간이귀화 또는 특별귀화 등의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할린동포들의 경우 국내에 일정한 체류기간을 요구하는 등 현실적 어려움이 있고, 국적취득을 위하여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국가 체제나 언어, 문화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구비하는 것이 여의치 않거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오랜 세월이 흘러 사실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서류들을 갖추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할린동포들이 불편함이 없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각종 요건, 구비서류 등과 관련한 규정을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할린동포들은 러시아연방이나 CIS 국가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고, 그곳에 생활기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국적을 포기해야 하는 등으로 각종 어려움이 직면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결코 대한민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할린동포들의 경우 보다 간편하게 복수국적을 보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관련

재외동포의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등에 관하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등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규정은 체류자격, 체류기간 등에서 러시아 연방이나 CIS 국가의 국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할린동포들에게는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할린동포들이나 그 배우자, 직계비속 등은 여건이 성숙되면 영주귀국을 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영주귀국을 준비하는 사람도 적지 않으므로 그와 같은 준비를 위하여 간편하게 출입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4. 마지막으로

저희 사할린동포들은 대한민국이 조국이라는 사실을 한 시도 잊은 적이 없고, 대한민국이 조국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어디에 있던 무슨 일을 하던 위와 같은 자세는 조금도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바라건대 저희 사할린동포들이 미력하나마 조국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과 정책을 고쳐 주실 것을 간곡하게 청원합니다.

**2023년 06월 일
주 러시아연방 상트페테르부르크 사할린 한인 대표**

최영구 회장

주 러시아연방 사할린 주 사할린 한인 대표

이채인

박 블라지미르

주 중앙아시아국가 사할린 한인 대표

이화섭 회장

주 러시아연방 모스크바 한인 대표

김태성 회장



러시아 사할린 향토박물관 진올리아 연구원 강연 안내

최근 러시아에서 기밀해제된 “사할린 한인 학살사건” 관련 자료들을 연구한 진 올리아 박사 강연을 개최합니다.

■ 일시 : 6.21(수), 16시

■ 장소 : 식민지역사박물관 5층

이번 강연은 “기밀해제 문서로 본 사할린 한인학살사건”이란 주제로 이루어지며, 방일권 교수의 토론으로 더욱 풍부하게 논의되리라 기대합니다.

이울러 이러한 사할린 동포의 역사를 밝히기 위한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문제도 함께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 온라인 병행 : Zoom 회의

<https://us02web.zoom.us/j/81412371281?pwd=SVFLOFFsdFNqSIJvUIVxUXZjRTI0dz09>

회의 ID : 814 1237 1281 암호 : 941197

■ 관련자료

○ 미즈호(МИДЗУХО)마을 학살사건(2017) 러시아어다큐

<https://youtu.be/00aYTtcPx5w>

○ 러시아어다큐 한국어제작 편딩 <https://together.kakao.com/fundraisings/63116/news>

○ [취재후] “6개월 갓난아이까지 학살”...사할린 조선인 학살 사건의 비밀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263236&ref=D>

○ 사할린 동포 1세의 기록되지 않은 죽음...한인 학살

<https://youtu.be/QHSR3T3UGQE>

사할린 주는 투자 면에서 극동 지역의 선두주자 중 하나로 드러나 (1면의 계속)

그리고 자본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야 합니다. 올해 계획은 2,900억~3,000억 루블리를 유치하는 것입니다.”라고 알레리 리마렌코가 말했다.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며 경제를 다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할린 지역은 목재 가공, 석유 및 가스 서비스, 농업 및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올해 여러 호텔이 들어서는 등 관광지로서 특별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극동 지역의 투자 증가율은 전국 평균보다 앞서고 있다. 극동 지역 투자의 70% 이상이 운송 및 보관, 광업, 제조업의 세 가지 분야에서 유치되었다.

국가 순위에서 극동 지역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극동 지역 지도부의 노력에 대해 논의했다. 극동 11개 지역 중 6개 지역이 2022년 순위에서 투자 환경 지표가 개선되었다. 사할린 주(5그룹)가 러시아 평균보다 1.5~2배 우수한 지표를 기록하여 1위를 차지했다. 특별 군사 작전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방안은 별도로 검토되었다.

“극동 지역에 위치한 모든 방위산업체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존 기업의 발전, 추가 기업의 설립, 신기술의 개발 및 도입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파트리오치체스카야” 선진 개발 영역의 일부로 지원 조치를 받게 됩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곧 운영될 것입니다.”라고 유리 트루트네프가 언급했다.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Лидер КНДР выразил поддержку России

КНДР выражает полную поддержку и солидарность народу России, который защищает свой суверенитет и будущее в борьбе с империалистами, и желает процветания и победы. Об этом говорится в поздравительной телеграмме по случаю Дня России, которую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лидер направил президенту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у Путину. Как сообщило агентство ЦТАК, Ким Чен Ын заявил, что дружба между КНДР и Россией, прошедшая проверку временем, «является ценным стратегическим достоянием, общим для двух стран», и Пхеньян приложит усилия для дальнейшего укрепления добрососедских отношений и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 Москвой, «как того требует новая эпоха». «Борьба российского народа с растущими угрозами и вызовами враждебных сил, стремящихся лишить Россию её суверенитета, безопасности и мирной жизни, вступила в новую решающую фазу», – говорится в телеграмме. «Справедливость всегда будет одерживать победу, а российский народ будет и впредь прославлять историю победы», – добавил Ким Чен Ын. Своё послание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лидер завершил пожеланиями крепкого здоровья президенту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у Путину и благополучия российскому народу.

РК и Саудовская Аравия создадут инвестиционный фонд

РК и Саудовская Аравия создадут совместный фонд в размере 160 млн долларов, чтобы помочь южнокорейским стартапам выйти на рынок Ближнего Востока. Как сообщили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малого, среднего и венчурного бизнеса РК,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инвестиционный фонд Саудовской Аравии вложит в фонд 150 млн долларов, а Корейская венчурная инвестиционная корпорация – 10 млн долларов. Как отмечается в сообщении министерства, создание фонда предусмотрено соглашением об инвестиционном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и поддержке стартапов между Сеулом и Эр-Риядом. Его подписали в ноябр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президент РК Юн Сок Ёль и наследный принц Саудовской Аравии Мухаммед бин Салман.

В РК пройдёт выставка вооружений

С 28 по 30 июня в Тэчжоне состоится Седьмая выставка передовой оборонн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2023 (KCEF & DIF 2023), на которой будут представлены отечественные оборонные технологии. Как сообщили в Корейском агентстве оборонных закупок, в выставке примут участие восемь крупных отечественных компаний по производству вооружений, в том числе, единственный в стране производитель самолётов - Корейская аэрокосмическая корпорация, а также 134 малые и средние компании. В рамках мероприятия пройдут различные программы, в том числе, семинар по компонентам вооружений. В этом году мероприятие станет седьмым, которое проводится раз в два года и призвана продвигать южнокорейские оборонные технологии.

РК ужесточает контроль за безопасностью морепродуктов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усилит контроль за безопасностью морепродуктов в связи с беспокойством потребителей по поводу сброса в океан загрязнённой воды с аварийной АЭС «Фукусима». Как сообщили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морского и рыбного хозяйства РК, выборочное тестирование продуктов рыболовства увеличится с примерно пяти тысяч образцов в прошлом году до более чем восьми тысяч в этом году. Тестирование по запросу общественности проводится с конца прошлого месяца, при этом министерство каждую неделю изучает десять наиболее востребованных продуктов и публикует результаты проверки.

В РК растёт число пострадавших от жары

В РК растёт количество пострадавших от ранней жары. По данным Корейского управления по контролю и профилактике заболеваний, в период с 20 мая по 8 июня 48 человек по всей стране обратились в медицинские учреждения с жалобами на недомогание, вызванное сильной жарой. Один человек умер. Наибольшее число людей с недомоганиями пришлось на возрастную категорию старше 65 лет. Чаще всего симптомы недомогания появлялись во время работы на открытом воздухе в обеденное время. Синоптики прогнозируют в этом году более жаркое лето, чем в прежние годы.

РК заняла четвёртое место на юношеском ЧМ по футболу

РК заняла четвёртое место на чемпионате мира по футболу среди юношей до 20 лет, проходившем в Аргентине. Южнокорейские футболисты проиграли в матче за третье место команде Израиля со счётом 3:1. Ранее в полуфинальном матче они проиграли команде Италии со счётом 2:1. Капитан южнокорейской сборной Ли Сын Вон получил приз «Бронзовый мяч» за третье место среди лучших игроков турнира. Он забил три гола и провёл четыре решающие передачи. На предыдущем чемпионате, который состоялся в 2019 году, южнокорейская юношеская сборная заняла второе место.

(RKI)

Южная Корея обнародовала новую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ую стратегию

Правительство Южной Кореи официально обнародовало новую "Стратегию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которая формулирует основные задачи, цели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Сеула, а также выделяет главные угрозы для интересов страны.

Документ стал отражением взглядов администрации консервативного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Юн Сок Ёля, который пришел к власти в начале мая прошлого года. Как и следовало ожидать, новая стратегия носит ярко выраженный анти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проамериканский и определенной степени даже прояпонский характер. Кроме того, РК намерена играть более активную роль на глобальном уровне, в значительной мере опираясь, в том числе, на силу.

По большому счету очередная "Стратег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которая обновляется с приходом каждого нового президента, никаких откровений не несет и его основные послыши легко можно было угадать, основываясь на тех заявлениях, которые регулярно делает президент РК Юн Сок Ёль, его окружение, а также исходя из того, какие действия Сеул стал предпринимать при новом лидере.

Основные столпы - жесткий подход к КНДР, когда единственным приемлемым для Сеула вариантом "межкорейской дружбы" является полная "сдача" Пхеньяном своего ракетного и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а также "свобода, демократия, рынок и права человека" в западном понимании этой концепции. Если же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не согласится с "щедрым предложением" Юга, то ей обещаны санкции, давление и "ставка на мир, основанный на силе". Другие основополагающие моменты - всестороннее укрепление альянса с США, развитие трехстороннего военно-политического союза с Вашингтоном и Токио, улучшение отношений с Японией.

В новой южнокорейской стратегии, которая разбита на 8 глав и описана на 107 страницах, отмечается, что мы сейчас проходим турбулентную и исторически важную эпоху, когда происходит активное столкновение идей, концепций, интересов держав, а многие конфликты и угрозы безопасности приобрели гораздо более острый характер. При этом констатируется новый подход по достижению "прочного мира, опираясь на собственную силу". "Мы продолжим развивать наши вооруженные силы таким образом, чтобы превратить их в мощные, технологически передовые войска, что позволит создать прочную основу для безопасности... Наша цель - поддерживать прочный мир, который гарантирует свободу и процветание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и в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что является противоположностью попыток поддержания слабого, шаткого мира, нацеленного просто на то, чтобы не допустить войны", – написал президент РК Юн Сок Ёль в предисловии концепции.

Южнокорейский лидер таким образом высказал свой критический подход к позиции предыдущего руководства РК во главе с экс-президентом Мун Чжэ Ином, которое пыталось развивать дружеские отношения 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 Пхеньяном, что Юн Сок Ёль считает просто потакательством агрессии КНДР. В целом, на протяжении всего документа содержится значительное количество очевидных "пинков" и "уколов" в адрес предшественника, что опять же типично для Юна и его команды: хотя прошло уже более года после прихода к власти, а администрация консерваторов не устает убеждать народ, что большинство проблем стали следствием ошибок предшественников, которые новое руководство вынуждено исправлять. Вообще многие корейские политики оценили новую стратегию как "разворот на 180 градусов по сравнению с тем, что делала администрация Мун Чжэ Ина".

Главным лозунгом новой стратегии выбрано выражение "ключевая глобальная держава свободы, мира и процветания". Лозунг также отражает новую деталь для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Сеула – большая ставка на идеологически окрашенные лозунги и концепции типа "демократии", "прав человека", "свободы", "противодействие авторитаризму", для чего подчеркивается необходимость укреплять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 теми государствами, "которые разделяют наши глобальные ценности".

Безусловно, больше всего в новом документе "досталось"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Если предыдущее руководство Южной Кореи настаивало на необходимости подписания официального соглашения о прекращении Корейской войны и мирного договора, то теперь Сеул это не интересует. Ядерная проблема КНДР названа "главной и основной угроз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Ранее выдвинутая в качестве основной программы политики в отношении КНДР "Смелая инициатива" Юн

Сок Ёля заявлена в качестве эффективного средства разрешения вопроса денуклеаризаци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Подчеркнуто, что, несмотря на отсутствие спустя год отклика со стороны Пхеньяна, она закладывает основу для "правильных меж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Тут стоит отметить, что отклик от КНДР на "Смелую инициативу" Юна был: Пхеньян еще в прошлом году заявил, что с новым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РК не намерен иметь никаких дел, попросив не беспокоить больше с различными "инициативами". Если же называть вещи своими именами, то нынешне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по сути не хочет ничего менять, и нынешние конфронтационные отношения с Пхеньяном его устраивают - по крайней мере, Юг не будет идти ни на какие уступки, а будет ждать, когда "прогнется" Север, наращивая на него давление и усиливая свою армию.

Другим важным тезисом является ставка на "глобальный всеобъемлющий альянс" с Соединенными Штатами Америки "на основе общих глобальных ценностей".

В целом же, анализируя новую стратегию в целом, очевидно, что играть более активную роль на мировой арене Южная Корея теперь намерена строго с позиций следования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ому курсу Вашингтона, активно участвуя в его новых инициативах и союзах. Безусловно, и предыдущая администрация называла США главным и самым важным союзником Южной Кореи, но оставляла себе пространство для маневра. Теперь же во главу угла поставлена общая позиция США и РК, подчеркивая единение национальных интересов Вашингтона и Сеула. По этой причине ряд оппозиционных комментаторов Кореи уже саркастически порекомендовали Юн Сок Ёлю переписать стратегию, где все будет построено именно с позиции интересов Южной Кореи, а не США.

Отражена также уже ставшая очевидной нацеленность администрации Юна на улучшение связей с Японией, к чему также активно подталкивают Сеул США. Так, указывается на необходимость развития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 Токио, активизации военно-полити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треугольнике РК-США-Япония.

Показательно, что если у Мун Чжэ Ина зарубежные державы по важности были выстроены в порядке США – Китай – Япония, то у Юн Сок Ёля в его новой стратегии на второе место переместилась именно Япония, а Китай отодвинут на третью позицию. При этом исчезли характерные для предыдуще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жесткие высказывания в адрес Токио и обещания "активно реагировать на искажения истории со стороны Японии". Страна восходящего солнца теперь заявлена как государство с общими с РК "глобальными универсальными ценностями", а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 Токио надо всячески развивать на региональном и глобальном уровнях.

России посвящены несколько достаточно коротких абзацев и в целом, судя по подходу, отношения с Москвой не воспринимаются как важные для Сеула. Вместе с тем, хотя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официальны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РК неоднократно допускали публичную критику в адрес РФ, но в новой стратегии особо резких выпадов нет. Основой стратегии в отношении Москвы заявлено "следование в общем лагере стран, которые ввели санкции против РФ", "снижение ущерба для работающих в РФ корейских компаний", "активное оказание гуманитарной и экономической помощи Украине". Одновременно задекларировано и намерение "вести попытки диалога по тем важным вопросам, которые требуют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с Россией". Указано, что Сеул намерен пытаться "выстраивать стабильные отношения с РФ", а подход к Москве будет строиться и изменяться "с учетом ситуации в конфликте на Украине и общего внешнего положения".

Если резюмировать "новый российский курс" Сеула при Юн Сок Ёле, то Южная Корея намерена следовать общему подходу Запада или "быть как все", где под "всеми" подразумеваются союзники США. Южная Корея в своей новой стратегии госбезопасности не говорит о необходимости наращивать давление на Москву, но при этом также не будет проявлять собственную инициативу на российском направлении. Какие-то подвижки могут произойти только после того, как Россия и Запад смогут договориться о снижении накала противостояния.

Новая "Стратег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согласно заявлению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РК, уже появилась как на корейском, так и на английском языках. Официальные структуры РК намерены распространить 7000 экземпляров брошюры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и 3000 – на английском. Корейский вариант содержит 107 страниц, тогда как английский - 150.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К)

Новые предприятия включаются в программу реализации свежеевыловленной рыбы по сниженным ценам

С возобновлением сезонного промысла в Поронайском районе рыболовцевский колхоз «Дружба» начал отгрузку свежеевыловленной камбалы и в другие муниципалитеты. Дары моря поступают на прилавки напрямую от рыбопромышленников и продаются по ценам, значительно ниже рыночных.

Свежая поронайская камбала отправилась в Ногликский, Тымовский, Макаровский, Долинский районы и Южно-Сахалинск. Пользуется популярностью местная рыба и в Поронайском районе.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заявками в разные муниципалитеты было поставлено более 2 тонн рыбы.

Всего с начала этого года по сниженным ценам продали 438 тонн даров моря. Это в два раза больше, чем годом ранее. К середине июня в 2022-ом реализовали 215 тонн рыбы.

– Мы на постоянной основе ведем работу, чтобы сахалинцы и курильчане могли регулярно приобретать свежие дары моря по ценам, в разы доступнее магазинных. Такую задачу перед нами постави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Была достигнута договоренность с рыбопромышленными предприятиями, что они отгружают часть уловов на внутренний рынок, минуя посредников. Благодаря этому удается сдерживать стоимость, – отметил министр по рыболовству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ван Радченко.

Ассортимент меняется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сезона, и сегодня он представлен шестью наименованиями: навага, камбала, треска, минтай, сельдь, краснопёрка. С ростом объемов вылова снижается цена на продукцию, которая реализуется в рамках программы. К примеру, камбалу можно купить за 56-86 рублей за килограмм, в то время как в большинстве магазинов она стоит 150 рублей за килограмм.

Программа реализации свежеевыловленной рыбы по ценам, ниже рыночных, реализуется уже более двух лет. Она является значимой частью проекта «Забота. Защита. Уважение», запущенного по инициативе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Доставку уловов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в города и села островной области организуют главы районов. Реализация рыбы в торговых точках обеспечивается в кратчайшие сроки с момента вылова.

Узнать о местах продажи и ценах можно на портале GeoIS: https://map.sakhalin.gov.ru/Fresh_fish. Также информация доступна в мобильном приложении «Острова.65»: <https://fish.sakhalin.gov.ru/?p=15484>, с помощью push-уведомлений, в социальных сетях и мессенджерах районных администраций.

Искусственный интеллект поможет оптимизировать медицину и транспорт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IT-парк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остоялась дизайн-сессия по Искусственному интеллекту, которую совместно организовали региональн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и Сбер. Участники предложили решения по цифровизации тех сфер, которые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влияют на качество жизни в регионе.

В мероприятии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редседатель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банка Сбербанка Андрей Черкашин, специалист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администраци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а такж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науки и студенты. Участники разделились на команды по отраслям – медицина, образование, ЖКХ, транспорт, экология, госуправление. Совместно с экспертами Сбера в области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Sber AI) каждая из команд разрабатывала идеи по внедрению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ИИ) в социально значимых сферах жизни.

Современные технологии помогут в реализации приоритетных проектов в рамках стратегии развит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о 2030 года. Губернатор отметил, что система управления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основывается на трех позициях.

– Первое – проектное управление. Это большая мощная пружина, которая действует на всю команду и приводит к реализации задач. Второе – бережливое производство. Любое дело мы раскладываем на процессы, для каждого из них определено время и результат, которые необходимо соблюдать. Третье – управление данными. У меня есть срез информации по каждому дню, и я моментально вижу отставания от плана. Самое главное, что в центре нашей системы управления – человек. И цифровые технологии помогают нам быстро принимать решения в его пользу, – 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цифровизация коснулась всех социально значимых отраслей. В здравоохранении внедрена медицинская информационная система. Каждый снимок попадает в единую базу данных. Огромный объем информации проходит через фильтр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который отмечает отклонения от нормы. Затем специалисты изучают изображения, вызвавшие сомнения, и предполагают злокачественные новообразования или другие патологии.

ИИ помогает улучшить и экологическую ситуацию в регионе. С помощью цифровых технологий оперативно поступает информация о качестве воздуха и воды, ликвидации свалок. Система «Безопасный город» позволяет оперативно выявлять нарушителей, благодаря чему жители могут чувствовать себя в безопасности. Искусственный интеллект анализирует также транспортную систему, чтобы создавать удобные для людей маршруты и оптимально загружать общественный транспорт.

–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 передовой регион, в кото-

ром применяются самые современные подходы к управлению. Сбер, в свою очередь, является ведущей компанией, где используются самые современные технологии, в том числе Искусственный интеллект. Задача нашей сессии – объединить тот опыт, который накоплен на Сахалине и в Сбере, для решения задач, поставленных главой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 сказал Андрей Черкашин.

Мэр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ергей Надсадин, принявший участие в сессии, отметил, что ИИ помогает принимать управленческие решения.

– У нас везде установлены камеры «Безопасный город». Современные технологии оптимизируют работу предприятий коммунального комплекса. Сегодняшняя сессия открыла для нас новые механизмы, которые мы можем внедрить в городскую среду и более эффективно выполнять многие функции,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глава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Отметим, Сбер как центр компетенций федер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Искусственный интеллект» и сторона соглашения с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РФ о развитии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ной отрасли «Искусственный интеллект» активно участвует в реализации Национальной стратегии развития ИИ до 2030 года.

Проект «Сахалинская практика персональной медицины» отметили на федеральном уровне

Сахалинская практика персональной медицины заняла второе место во Всероссийском конкурсе «ОргЗдрав. Лидеры отрасли». Министр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ладимир Кузнецов представил на Всероссийском форуме работу медицинских администраторов – сотрудников, отобранных из числа пациентов, которые с февраля этого года оказывают помощь лицам с хроническими заболеваниями.

За пять месяцев в команду проводников здоровья влилось больше 500 человек. Проект запущен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Каждый день медицинские регистраторы держат связь со своими подопечными: напоминают о ближайших приемах, помогают взять талон и решают сопутствующие проблемы.

– Все проводники проходят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ый курс, разработанный для решения поставленных задач. В него включены как общие принципы диспансерного наблюдения, организации работы поликлинического звена, так и навыки бесконфликтного общения, управления взаимодействиями, курс для освоения применяемых цифровых систем и сервисов, – рассказал Владимир Кузнецов.

Помимо администраторов большое значение в проекте играют координаторы, задачей которых является контроль за работой команды. Они решают нестандартные вопросы и разрешают в частном порядке даже самые сложные жизненные ситуации пациентов. В этом им помогают руководители медицинс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и министерств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области.

Совместными усилиями новый проект охватил уже более 50 тысяч островных пациентов. Уже есть результаты: эффективность выявления патологий на ранней стадии, рост доверия общества, увеличение ожидаемой продолжительности жизни. Всего планируется взять под контроль 150 тысяч граждан, состоящих на диспансерном наблюдении.

Отметим, в рамках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конкурса «ОргЗдрав. Лидеры отрасли» ежегодно подводятся итоги в отрасли и награждаются лидеры в сфере организации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В этом году были представлены 76 работ из 39 регионов страны.

Более 20 социальных объектов построят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рамках президентской «Единой субсидии»

Своевременное завершение строительства социальных объектов на территории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федерального округа, финансируемых в рамках национальных проектов и президентской «Единой субсидии», обсуждалось на заседании совета округа, прошедшего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Заместителя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 полномочного представителя Президента РФ в ДФО Юрия Трутнева. В мероприятии принял участие губерна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Такая работа должна проводиться вне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ситуации в стране: школы и больницы должны строиться, должны открываться новые детские сады, стадионы, спортплощадки, ремонтироваться дороги. В 2023 году за счёт средств президентской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й «Единой субсидии» предусмотрено строительство 75 объектов, в рамках национальных проектов – 291. Из них уже введено в эксплуатацию 40 объектов по нацпроектам и пять по президентской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й «Единой субсидии», – отметил Юрий Трутнев.

По словам Министра РФ по развитию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Арктики Алексея Чекункова, каждый объект, который строится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и в рамках нацпроектов и президентской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й «Единой субсидии», решает конкретные задачи по улучшению качества жизни людей, развитию экономики и социальной сферы.

– Своевременный ввод в эксплуатацию объектов – это ключевой приоритет совместной работы как на региональном, так и на федеральном уровнях, – сказал он.

По линии президентской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й «Единой субсидии» в ДФО в 2023 году реализуется 191 мероприятие. На это из федер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выделено 27,8 млрд рублей. К вводу в эксплуатацию в этом году запланировано 75 объектов социаль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К се-

годняшнему дню сданы пять объектов, в том числе один – на Сахалине. Это здание социально-реабилитационного центра для несовершеннолетних «Маячок».

– До конца этого года на островах в рамках президентской программы планируется ввести еще ряд объектов. Так, современные школы появятся в Ногликах и Курильске, школы-детский сад – в Кировском и Головинно. Жители Шахтерска получат центр культурного развития. Запланирован ввод объектов ЖКХ, социальной и транспортной сфер, – рас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сего в рамках плана социального развития центров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ос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2023 году строится 24 объекта. Общий объем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 4,1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Обсуждалось распределение средств президентской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й «Единой субсидии» на 2024-2026 годы. Среди приоритетных направлений – новые мероприятия, предусмотренные мастер-планами и планами развития городов, в том числе по механизму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й концессии», стратегические инициативы по росту численности населения, программа «50 спортзалов», а также ранее одобренные президиумом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ой комиссии по вопросам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мероприятия по строительству социальных объектов и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TOP. Как доложил Алексей Чекунков, Минвостокразвития России совместно с регионами приступили к формированию перечня мероприятий для реализации с 2024 года.

– Качество жизни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должно быть выше среднего уровня. Такую задачу поставил Президент. Для этого необходима слаженная работа на всех уровнях власти. Максимально эффективное использование средств, предоставляемых по линии национальных проектов и президентской «Единой субсидии», в экономику дальневосточных регионов и ввод всех объектов в установленные сроки сегодня – одни из ключевых задач, решение которых позволит нам создать важные для жителей регионов и страны объекты и улучшить условия для жизни граждан. Если регионы отстают, не могут эффективно организовать работу по развитию социаль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то средства будут распределены по тем субъектам, которые умеют работать, – подытожил Юрий Трутнев.

По итогам обсуждений вице-премьер поручил Минвостокразвития России, губернаторам дальневосточных регионов принять исчерпывающие меры и обеспечить в 2023 году своевременный ввод в эксплуатацию объектов в рамках реализации национальных проектов и по линии президентской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й «Единой субсидии», а также совместно с федеральными органами исполнительной власти, ответственными за реализацию национальных проектов, сформировать и утвердить планы-графики по ликвидации отставаний по объектам.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представит достижения на первой международной выставке «Россия» на ВДНХ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примет участие в первой международной выставке-форуме «Россия», которая состоится в Москве по поручению Президента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Мероприятие будет проходить с 4 ноября 2023 г. по 12 апреля 2024 г.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продемонстрирует важнейшие технологические, инфраструктурные, социальные достижения за последние 6 лет, представит туристический потенциал, расскажет о возможностях обучения,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а, а также о планах развития на будущие десятилетия.

Выставка будет проходить впервые, в ней примут участие все регионы страны, а такж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федеральных министерств и ведомств, различных корпораций и иностранных государств. Основная цель –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ть важнейшие достиже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различных отраслях экономики, включая промышленность, энергетику, агропромышленный комплекс, транспорт, строительство, науку и культуру, положительный опыт развития субъектов страны.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откроет в своем павильоне ряд стендов, отражающих различные сферы. В разделе «Экономика» экспозиции расскажут о нефтегазовых проектах, в том числе создании нефтесервисного индустриального парка, подготовке 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х кадров, газификации региона, угледобывающей и рыбн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развитии авиации,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го и морского транспорта в регионе. Посетители стенда «Сельское хозяйство и пищевая промышленность» узнают об обеспечении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на островах, реализации крупных проектов в сфере животноводства и растениеводства.

Также посетители ознакомятся с возможностями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а, социальными проектами, уровнем медицины и социального обслуживания, проектом кампуса САХАЛИНТЕСН, развитием агломераций. Гостям расскажут об уникальных туристических местах, которые ежегодно привлекают тысячи туристов.

Активности в павильонах будут идти постоянно. Гостей сахалинских экспозиций будут радовать выступлениями островные творческие коллективы, артисты театра. Кроме того, посетители познакомятся с историко-культурными особенностям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том числе культурой и бытом коренных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области, для всех желающих, например, проведут мастер-классы по изготовлению картин из рыбьей кожи, вырезанию фигурок животных из дерева.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재외동포청, 국내 체류 동포 지원정책 마련해야"

재외동포 관련 국내 시민단체 및 언론 30곳, 국회의원회관서 기자간담회 "재외동포청에 국내 체류 동포 전담조직 부재... 관련 정책 마련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 "재외동포의 안정적인 모국 체류와 사회적응 지원 위한 기본계획 수립하라" 촉구

재외동포 관련 국내 시민단체 및 언론 30곳은 6월 12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로 출범한 재외동포청이 재외동포의 안정적인 모국 체류와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먼저 "재외동포기본법 제정과 재외동포청 출범으로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실질적인 환경이 구축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오늘날 대한민국의 재외동포는 732만여명 규모에 달하고 이중 80만여명의 동포들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며 "국내 체류 동포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동포들은 모국의 출입국을 비롯해 다양한 방면에서 모국사회 적응에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이제 '동포의 안정적인 거주국 정착'을 지향하던 정부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정부는 국내 체류 동포를 단기간 체류 이후 거주국으로 귀환하는 외국인으로 대우하지 말고 한국사회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동포들을 포용해 한국 체류와 정착 과정에서 국가발전과 동포사회의 발전을 상생적으로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금번에 제정된 재외동포기본법은 재외동포 정책의 정의 중 '재외동포의 대한민국에서의 법적·사회적·경제적 권의 향상에 관한 정책'을 명시했고,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방향을 '재외동포가 대한민국에 출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편의를 제공하고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을 함으로써 재외동포가 대한민국에서 권익신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어 "<재외동포기본법>(4조 국가의 책무)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4조 정부의 책무)은 모두 재외동포가 차별받아서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최근 출범한 재외동포청에는 국내 체류 동포를 위한 전담조직이 부재하다"며 "재외동포의 모국 사회적응을 위한 정책 마련에 실질적인 노력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 6월 5일 재외동포청 출범식에서 윤 대통령이 "해외에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힘있게 지켜온 재일동포, 중앙아시아의 고려인과 사할린동포,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 근대화의 초석이 된 파독 광부·간호사 분들 역시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보살피고, 다문화 가정 동포, 해외 입양 동포, 또 국내 체류 동포와 같이 전담 기구의 부재로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동포들도 적극적으로 포용할 것"이라고 한 발언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의 발언을) 크게 환영하는 바이며, 대통령의 언급이 제대로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로 출범한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의 안정적인 모국 체류와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조직 구성과 사업계



재외동포 관련 국내 시민단체 및 언론 30곳은 6월 12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재외동포청의 국내 체류 동포 지원정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획 및 예산 등을 마련하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재외동포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한 바(13조) 이에 대한 충실한 이행을 보장하는 시행령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문 낭독에 앞서 정영순 대한고려인협회 대표, 김봉규 중국동포한마음 연합총회 대표, 이수진 전 사할린 한인이주운동 대표, 최상구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대표, 조룡제 재외동포포럼 이사장이 각각 고려인동포, 중국동포, 사할린동포, 재일동포, 유렵&미주동포 관련 정책을 제안했다.

기자회견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

재외동포청 출범에 따른 동포단체들의 정책제언

재외동포기본법의 제정과 재외동포청의 출범으로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실질적인 환경이 구축되었음을 환영한다. 재외동포기본법은 재외동포사회의 안정과 권익향상이 바로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 증진에 기여하는 것임을 확인하고 있다. 최근 우크라이나 피난 동포들이 국내에서 겪고 있는 긴급구호의 절박성은 재외동포사회에 대한 모국의 지원이 국가의 경계를 넘어 국내외적으로 요청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재외동포는 732만여명의 규모에 달하고 있고 그 중에 80만여명의 동포들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 국내 체류 동포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동포들은 모국의 출입국을 비롯하여 다양한 방면에서 모국사회 적응에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이제 <동포의 안정적인 거주국 정착>을 지향하던 정부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 한국정부는 국내 체류동포를 단기간 체류 이후 거주국으로 귀환하는 외국인으로 대우하지 말고 한국사회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동포들을 포용하여 한국 체류와 정착하는 과정에서 국가발전과 동포사회의 발전을 상생적으로 함께 도모할 수 있을 정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금번에 제정된 재외동포기본법은 재외동포 정책의 정의 중 "재외동포의 대한민국에서의 법적·사회적·경제적 권의 향상에 관한 정책"을 명시하였고,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방향을 "재외동포가 대한민국에 출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편의를 제공하고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사회 적응을 위한 지원을 함으로써 재외동포가 대한민국에서 권익신

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외동포기본법>(4조 국가의 책무)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4조 정부의 책무)은 모두 재외동포가 차별받아서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최근 출범한 재외동포청에는 국내 체류 동포를 위한 전담조직이 부재하는 등 재외동포의 모국 사회적응을 위한 정책마련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런데 6월 5일 재외동포청 출범식에서 윤 대통령은 "해외에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힘있게 지켜온 재일동포, 중앙아시아의 고려인과 사할린동포,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 근대화의 초석이 된 파독 광부·간호사 분들 역시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보살피고, 다문화 가정 동포, 해외 입양 동포, 또 국내 체류 동포와 같이 전담 기구의 부재로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동포들도 적극적으로 포용할 것"이라고 했다. 크게 환영하는 바이며, 대통령의 언급이 제대로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다.

이에 우리는 새로 출범한 재외동포청이 재외동포의 안정적인 모국 체류와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조직 구성과 사업계획 및 예산 등을 마련하는 실질적인 정책수립과 시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재외동포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한 바(13조), 이에 대한 충실한 이행을 보장하는 시행령 제정을 촉구한다.

2023년 6월 12일
경북고려인통합지원센터, 광주이주 민중합치원센터, 남양 글로벌 아시아센터, (사)너머, 너머 인천 고려인 문화원, 다모어세계시민 사회협동조합, (사)다문화이민행정협회, (사)더큰이웃아시아, 대한고려인협회, (사)동북아 평화연대, 동포세계신문, 세계여성한인협회, (사)CK여성위원회,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사)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전국사할린귀국동포연합회, 재외동포신문, 재외동포연구원, (사)재외동포포럼, (사)조각보,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중국동포사회문예연구소, 중국동포한마음연합총회, 중소기업투데이, 포승고려인마을사회적협동조합(준), 한국이주동포정책연구소, (사)한중사랑, 한중삼강포럼, 한중포커스신문, KIN(지구촌동포연대)

출처 : 재외동포신문
(<http://www.dongponews.net>)

[우리말로 깨닫다]

사글세가 아니라 월세

외국인에게 전세라는 말을 설명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돈이 있으면 집을 사고, 없으면 월세를 살아야 하는데 왜 애매하게 전세를 사느냐는 질문입니다. '전세'라는 말은 한국어에만 있는 매우 독특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표현이라기보다는 제도라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전세라는 제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서서히 종말을 고하게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전세가 없어지고 모두 자기 집을 가지면 좋겠지만 그런 일은 안 일어나겠죠. 전세의 자리는 월세로 바뀌어 가는 겁니다. 우리말에서 전세는 정말 옛말이 될까요?



▲ 조현용 (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예전에는 주로 월세라는 말 대신에 사글세라는 말을 썼습니다. 사글세의 어원에 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삭월세(朔月費)라는 말이 어원이 희미해져서 사글세로 바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삭(朔)은 초하루를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초하루에 월세를 낸다는 의미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언중들은 사글세를 샅과 월세가 합쳐진 말로 보기도 합니다. 샅을 월 단위로 낸다는 의미였을 것이라 추측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품삯을 매월 내야 한다는 부담에서 그리 생각하였을 겁니다. 사글세는 웬지 우울한 느낌이 강합니다.

아무튼 현재는 어원을 알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글세라고 표기하거나 아예 월세라고 씁니다. 대학생들에게 물어보니 아예 사글세라는 말을 모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제 옛말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사글세는 어휘적으로도 이제 월세로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사글세라는 말은 매우 부정적인 느낌으로 쓰였습니다. 사글셋방이라는 말은 가난하다는 의미와 동의어처럼 쓰인 겁니다. 사글세를 살았다는 말은 그대로 가난했다는 의미입니다. 어쩌면 주거지와 관련하여 사글셋방만큼 우울한 느낌이 있는 단어도 적었을 겁니다. 저는 종종 사글세가 서글픈 '서글세'구나 하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말장난 같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말에서 사글세는 사라지고 월세가 자리를 잡고 있으니 서글픈 마음도 함께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집값이 획기적으로 낮아지지 않는 한 월세가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결혼을 앞 둔 사람에게 집은 큰 부담입니다. 월세가 일반적인 나라에서는 이런 부담이 적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세와 내 집'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사글세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글세로 시작하면 웬지 패배자로 시작하는 느낌인 겁니다. 하지만 전세, 내 집은 결혼 자체를 어렵게 만듭니다. 만약 내 집으로 시작하려면 장기 저리의 용자가 필요할 겁니다. 월세보다 약간 돈이 더 들어가는 구조라고나 할까요?

월세는 사실 노후에도 매우 좋습니다. 고령자들의 재산은 대부분 집이나 전세에 묶여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이 전부 묶여있는 셈입니다.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일정금액을 연금식으로 받는 '역모기지'라는 제도가 조금씩 확산되고 있지만 이 제도를 선택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주 간단한 구조의 고령자 아파트가 비교적 교통이 편리하고 병원이 가까운 곳에 많이 마련되기 바랍니다. 자식이 독립한 후에 굳이 넓은 집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돈이 부동산에 묶이지 않으면 비교적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이마저도 힘든 사람이 많이 있을 겁니다. 국가의 복지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할 겁니다.

저의 부모님도 노인 아파트에서 월세를 내며 살고 계십니다. 저도 나이는 고령자를 향해 가고 있고, 아이들은 결혼 연령이 되고 있습니다. 위의 이야기는 모두 제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이 독립하면 저도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적당한 가격의 월세면 좋겠습니다. 방 하나 거실 하나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방이나 거실에 책이 많이 있는 것은 조금 걱정이기는 하네요. 복지가 뒷받침이 되면서, 월세가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는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젊은이는 월세로 편하게 독립하고, 노인은 월세로 편하게 마무리 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기 바랍니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특별한 기술 요구 사항은 없으며 휴대폰이나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하면 된다. 또한, TV 프로그램 진행자 왈디스 펠쉬는 "영화는 대부분 비전문가가 만든 것"이라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영상의 시간은 10분을 넘지 않아야 하며, 각 참가자는 각 부문에서 한 편 영상만 제출할 수 있다.

하이킹(야생 캠핑), 수상 여행(강 래프팅, 바다 여행), 겨울 여행(스키, 개썰매), 그랑프리(전체 3개 분야) 등 네 가지 부문에 응모할 수 있다.

На панельной сессии «Дальний Восток — земля приключений» показали два фильма 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 форуме «Путешествуй» 10 июня состоялась сессия-презентация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конкурса на лучшее путешествие «Дальний Восток — Земля приключений». На ней представили несколько фильмов, в том числе 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Цель конкурса — показать самые красивые места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Люди, которые путешествуют сами, любят нашу землю, которым нравится наш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могут показать округ так, что это привлечет людей из других регионов», — отмечал ранее Юрий Трутнев.

С момента старта конкурса прошло 9 месяцев, за это время члены жюри получили уже 368 заявок и 54 готовых фильма. На панельной сессии в ВДНХ впервые показали работы трех путешественников, которые побывали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Забайкальском крае и сейчас борются за призы конкурса. Главный выигрыш — 3 млн рублей.

Так, Андраник Агафонов создал фильм «От пика БАМ к Скалистому гольцу», Даниил Киселев — автор видеофильма «Северные Курилы. Экспедиция на извергающийся вулкан Эбеко», а Денис Родичкин участвует в конкурсе с работой «Восхождение на хребет Жданко». Каждый фильм показали на панельной сессии, а участники конкурса поделились своими впечат-

лениями от пройденных маршрутов.

Особых требований к технике нет — фильм может быть снят и на телефон, и на видеокамеру. Более того, телеведущий Валдис Пельш добавил, что «фильмы в основном сняты непрофессионалами», поэтому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может любой желающий. Продолжительность кинофильма о путешествии не должна превышать десять минут, каждый участник конкурса может заявить не более одного кинофильма в каждой номинации.

Работы принимают в четырех разных номинациях: пешее путешествие (пеший поход по дикой природе), водное путешествие (сплав по реке, морское путешествие), зимнее путешествие (лыжный поход, путешествие на собачьих упряжках) и гран-при (все три активности).

태권도 심사 세미나에서 최고 성적을 거둔 사할린 선수

전 러시아 태권도 품새 심사 세미나가 하바롭스크에서 열렸는데 하바롭스크, 연해주, 캄차카변강, 사할린 주의 태권도 대표 선수 30명이 참석했다. 사할린 주는 예브게니 류브치노프가 대표했다.

사할린 체육부는 이번 세미나가 전통적인 품새와 자유 품새에 대한 실질적인 문제를 다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기본 기술, 품새 공연, 이론 및 실습 시험을 치렀다.

결과로는 12명의 심사위원의 인증을 받은 사할린의 예브게니 류브치노프가 전체 참가자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Сахалинец показал лучший результат на судейском семинаре по тхэквондо

Всероссийский судейский семинар по пхумсэ прошёл в Хабаровске. Его участниками стали 30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тхэквондо из Хабаровского, Приморского, Камчатского краёв 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представлял Евгений Любчинов.

Как рассказывают в сахалинском министерстве спорта, на занятиях разбирались практические вопросы по технике выполнения традиционных пхумсэ и пхумсэ-фристайл. По окончании участники сдавали экзамен по базовой технике, выполнению пхумсэ, теории и практике.

По его результатам аттестацию получили 12 судей, а сахалинец Евгений Любчинов набрал самый высокий балл среди всех участников.

"미시즈 러시아 2023"에서 극동 거주자가 우승

기혼 여성이 참가할 수 있는 전국 미인 대회 "미시즈 러시아 2023"의 결승전이 모스크바에서 열렸다. 행사 결과에 의해 하바롭스크에 거주하는 나탈리아 오스카르가 "미시즈 러시아 2023"의 우승 칭호를 받았다고 타스 통신에서 보도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온 83명이 참가했는데, 그 중 최고령 참가자는 62세였다. 대회 기간 동안 참가자들은 각자의 고향의 아름다움을 기념하는 의상을 입고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나탈리아는 영어 교사이자 작곡가(그녀의 곡 중 하나는 대회에서 선보였다)이며 어린 딸을 둔 어머니이다.

이 여성은 새로운 칭호와 함께 특별상으로 고급 호텔에서 숙박할 수 있는 발리 여행권도 수상했다.

Жительница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стала "Миссис Россия - 2023"

В Москве прошел финал национального конкурса красоты "Миссис Россия мира - 2023", открытого для замужних женщин. По итогам мероприятия, жительница Хабаровска Наталья Оскар была удостоена звания "Миссис Россия - 2023", сообщает ТАСС.

Борьбу за титул разделили 83 участницы из разных регионов страны, самой старшей из которых было 62 года. В ходе конкурса каждая из участниц привлекла внимание к наряду, воспевающему красоту своего родного края.

Наталья - преподаватель английского языка, автор песен (одну из них она исполнила на конкурсе) и мать маленькой дочери.

Помимо своего нового титула, женщина также награждена особым призом - отпуском на Бали с проживанием в роскошном отеле.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 полугодие 2023 года.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6 месяцев — 606 руб. 0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실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Уважаемые читатели!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едлагает печатные площади для размещения рекламы, объявлений и поздравлений. Конт. телефон: 43-59-80, 43-72-94. Адрес эл.почты: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38107503400000024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본사 편집부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 (주필) 배 워토리아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3-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